

동물권행동 **카라**

더봄센터

목욕/미용봉사 안내

www.ekara.org





봉사 전 준비 사항

더봄 센터에 오시기 전, 준비사항!

- ❖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파상풍 주사**를 맞아주세요.
- ❖ 동물들의 털과 오물 등으로 옷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 젖거나 더러워져도 되는 옷과 신발을 착용하시거나 여벌 옷을 가져와주세요.
- ❖ 개인 위생과 일회용품 사용의 최소화를 위해 개인 장갑, 텀블러를 가져와주세요.
- ❖ 오시는 방법[자차, 그외 대중교통] 을 미리 확인해 주세요!

더봄센터 이동 방법

❖ 자차 이용 시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229]로 검색하셔야 정문으로 안내됩니다.



❖ 대중교통

- 더봄센터에서 가장 가까운역은 문산역이며, 버스는 배차간격이 길어 길찾기 앱 등으로 시간 및 경로를 미리 검색해주세요.





자원봉사 안내



KARA

○○○○

Samsung Quad Camera

봉사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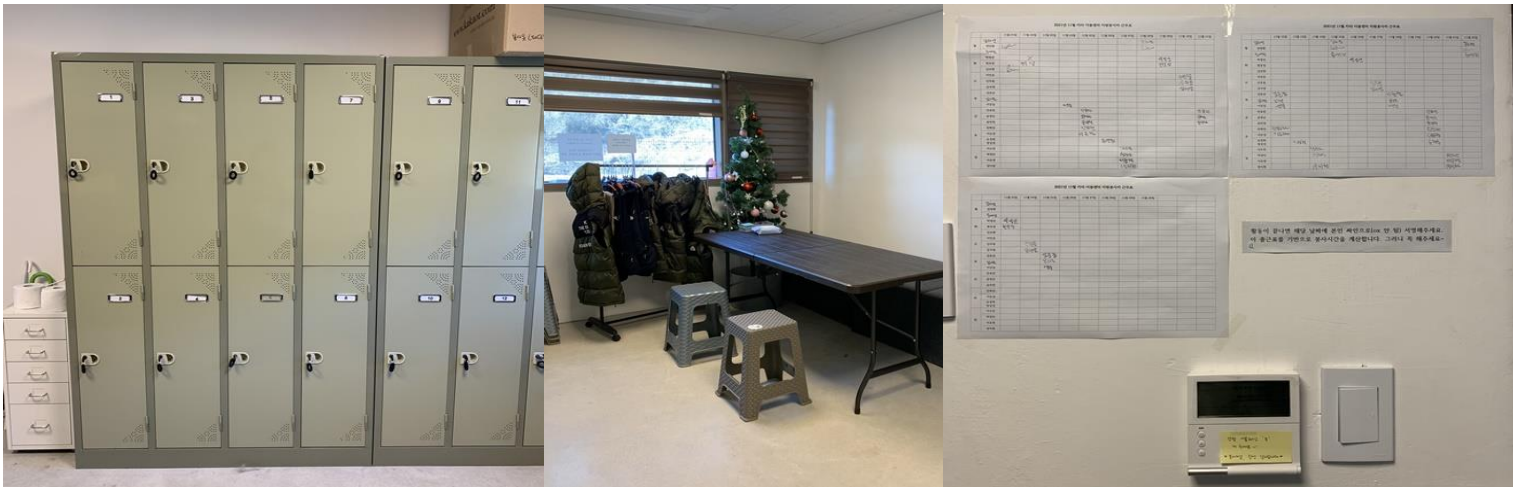
[1:30~1:40] 주의사항 안내 및 간단 투어(투어는 첫 방문 봉사자님 대상입니다.)

[1:40~3:15] 목욕/미용 봉사 진행

[3:15~3:30] 목욕실/드라이룸 뒷정리 및 봉사 마무리

더봄센터 도착 후

- ❖ 봉사자 휴게실의 캐비닛에 짐을 보관하신 뒤 봉사지로 이동해주세요.
 - 캐비닛 열쇠는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동물들이 삼킬 수 있으니 주의!)
- ❖ 비치되어 있는 봉사자 조끼는 착용 가능하며, 귀가 시에 꼭 반납해 주세요.
 - 봉사자 조끼 주머니에 사료/간식을 넣지 말아주세요.
- ❖ 봉사 확인표 사인 : 봉사 확인을 위해 서명을 꼭 남겨주세요!
- ❖ 에어컨 / 난방 / 전등은 사용하신 뒤 꼭 꺼 주세요.
- ❖ 봉사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어요.



▶ 목욕 순서

1. 목욕(약욕/일반)하기(단, 장모의 경우 엉킨털 있을 경우 빗질 후 목욕)
2. 수건으로 충분히 말리기
3. 털말리기 - 드라이룸을 사용할 경우, 중간중간 털이 골고루 마를 수 있게 수건/빗질 필요
4. 목욕이 완료되면 건사로 이동(활동가 동행)

▶ 드라이룸 사용법

1. 드라이룸 안에 패드나 담요/수건을 깔아주세요.
 2. 강아지가 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드라이룸 안에 안전하게 넣어주세요.
 3. 문 열림 방지 걸이 딸깍 소리 확인되도록 잘 걸어주세요.
 4. 전원 버튼 → 드라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시작 전 온도와 바람세기를 체크해주세요.)
- * 털이 고루 마를 수 있도록 드라이 중간에 문을 열어 빗질을 해주세요(탈출하려는 개체는 제외).
- 드라이 종료 후 털을 만져봤을 때 덜 말랐다면, 드라이 시간을 추가하거나 따로 드라이기로 말려주세요.
5. 드라이 종료 후 안전하게 리드줄 채워서 꺼내주세요.(탈출 주의)



주의 사항 및
안전 수칙

▶ 목욕 시 주의 사항

1.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정도의 온수로 사용해 주세요.
 2. 물이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3. 샴푸가 눈,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4. 강아지가 놀라지 않도록 큰 목소리나 행동은 자제해 주세요.
 5. 피부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털을 꼼꼼하게 잘 말려주세요.
 6. 드라이기의 온도가 뜨겁지 않은지 중간중간 확인해 주세요.
 7. 겁이 많은 개체에게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대해 주세요.
 8.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에는 탈지면 솜으로 조심스럽게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9. 몸에 이상 발견 시 활동가에게 말씀해 주세요.(ex.피부이상)
 10. 약욕일 경우 샴푸 바르고 10분 뒤에 헹구어주세요. (그동안 마사지를 해 주시면 좋아요.)
 11. 목욕 후 사용한 수건은 세탁실 한 켠에 모아주시고, 목욕실 뒷정리를 해 주세요.
 - 12.간식과 장난감은 카라 활동가가 준비하여 현장에서 요청 드린 경우에 한에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 ✓ 수술, 설사, 알러지 등 간식을 먹으면 안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 ✓ 신부전, 심부전, 노령묘의 수치를 관리가 필요한 동물들은 간식 제한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대할 때는 안전 수칙을 지켜요!

동물을 만나는 일은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일과 같습니다. 처음 만나는 관계로서 적당한 거리와 예의를 지켜 주시고, 천천히 다가가 주세요. 동물을 놀라게 하는 시선, 소리, 몸짓은 삼가 주세요.

- ✓ 들어오고 나갈 때, 문 단속에 유의해 주세요.
 - * 견/묘사 출입 시 동물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유심히 살핀 후 들어가 주세요.
- ✓ 사람의 음식, 솜이나 플라스틱 조각 등을 동물이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 동물에게 이상이 발견되면 활동가에게 바로 알려 주세요.
- ✓ 사료와 간식, 장난감은 동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활동가 외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유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만지거나 안으면 물림 사고 위험이 있어요.
- ✓ 안전 사고, 전염병 등의 문제로 더봄센터 개체 외의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 ✓ 배정받은 봉사지에서 임의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안전과 방역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 활동가에게 말씀해주세요!

인간중심적이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피해요.

- ✓ 특정 품종에 대한 일반화

“진도 믹스는 아무래도 마당 있는 집에서 키우는 게 좋죠.”

- ✓ 개별 동물의 고유성보다 품종 우선시

“그럼 푸들이나 말티즈 한 번 키워보시면 어때요?”

- ✓ ‘가족’, ‘보호자’, ‘반려인’ 대신 ‘주인’이라 지칭

“이 개도 주인이 생기면 더 건강해질 거예요.”

- ✓ 인간 사회의 고정관념을 동물에게 투영

“애 암컷이죠? 여자애같이 생겨서 그럴 것 같았어요. 성격도 얌전하고.”

→ 방문객에게도 성별화된 호칭보다는 성 중립적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동물과 사람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함께 지켜주세요! 😊



더봄센터의 자원봉사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동물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

동물권행동 카라